

이태준 후기 단편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만주기행』 전후 작품을 중심으로-

이정은*

|| 차례 ||

- I. 서론
- II. 『만주기행』의 현실 인식
- III. 『만주기행』을 전후한 소설의 변화 양상
 - 1. 문화 층위에서 저항하기-『패강녕』의 경우
 - 2. 정치 층위에서 협력과 저항 오가기
 - 1) 정황 흐리기와 시간 뒤섞기-『영월영감』, 『농군』의 경우
 - 2) 일상과 체제 결합하기-『토끼이야기』의 경우
- IV. 결론-이태준 후기 단편소설의 내용 변화와 관련해

【국문초록】

본고는 이태준이 신체제기에 발표한 작품들이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기존 논의들이 신체제기를 전후해 이태준 작품이 변모해 간 양상을 일관성있게 설명하지 못한 점에 주목해 이태준의 후기 단편소설 중 주요작품을 분석해 이 변화를 설명해보고자 했다. 이태준의 수필 『만주기행』은 이 변화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태준은 『만주기행』에서 대상에 대한 이국취미와 제국주의의 시선을 동시에 보여준다. 본고에서 다룬 이태준의 단편소설 중 『만주기행』 이후에 쓴 작품은 그 정도와 형태에 관계없이 체제 협력적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태준 단편소설의 이러한 흐름과 이 시기 이태준의 행보는 그대로 일치한다. 이태준이 이 시기에 보여준 협력적 면모는 기존 논의의 지적과 달리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인 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한다.

*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강사.

주제어 : 신체제, 만주기행, 체제협력, 순응

I. 서론

크게는 1937년에서 1945년, 작게는 1940년의 이후를 보통 신체제기(新體制期)라 한다. 이 시기의 비교적 초입인 1938년 4월에 이태준은 문인보국회 일원으로 만주에 다녀온 체험을 『만주기행』에 기록¹⁾한 이후 일제의 요구에 점차 협력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그는 1939년 10월 총독부가 계획한 ‘조선문인협회 발기 간담회’에 참석했고, 1940년에 『지원병훈련소의 일일』을 발표했으며, 1941년을 전후해 ‘황군위문작가단’, ‘조선문인협회’에서 활동했다. 같은 해에 제2회 조선예술상을 수상했으며, 이무영과 함께 『대동아전기』를 번역하고 문인보국회의 시국강연회에 불려다녔다. 1943년 4월에는 ‘조선문인보국회’의 일원으로 ‘총력연맹’의 지시를 받아 목포조선철공회사를 시찰하고 『목포조선현지기행』을 썼고, 이를 토대로 1944년 9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기관지 『국민총력』에 일본어 소설 『제일호선의 삽화』를 발표했다²⁾. 1938년 이후 그가 발표한 작품에도 그러한 흔적이 드러난다. 권성우는 이태준이 만주 여행에서 동포들의 투쟁을 보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공감과 연민”³⁾을 느낀 나머지 ‘현실 참여적’이거나 ‘치열한 자기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을 쓰게 됐다 한다. 그에 따르면, 창작에

1) 1938년에 발표한 『이민부락건문기』와 이를 고쳐 1941년 『무서록』에 수록한 『만주기행』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 본고는 『이태준 문학전집』 제15권(서음출판사, 1988년)에 실린 『만주기행』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2) 참조 1) 『국민문학』, 1942. 2, pp.62~63(김용직, 『일제말 암흑기 한국문학인들의 의식 성향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제10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p.18) 2)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p.96~106.

3) 권성우, 『이태준 기행문 연구』, 『상허학보』 제14호, 상허학회, 2005, p.197.

‘새로운 물꼬를 튼 계기’가 된 이 만주체험은 그의 급작스런 ‘문학적 변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문학적 원천’⁴⁾이다.

문제는 이 ‘현실 참여적’ 소설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의 현실 행보와 작품 활동이 엇박자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를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주기행』만 해도 이태준과 ‘문인 보국회’가 관계한 과정에서 생산된 글이란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해준다. 해방을 전후해 이태준이 보인 내도는 이러한 의심을 더 크게 해 준다. 자신은 일본어로 소설을 썼으면서도 타인의 일본어 사용을 친일이라 비판하거나⁵⁾, 해방 후 원남동 문인 모임, ‘봉황각 좌담회’에서 친일 문인들을 강하게 비난⁶⁾하면서도 『해방 전후』에서 자신의 협력 행위는 변명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태준의 작품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1930년대 중, 후반에 활동한 지식인들은 일제에 저항하는 동시에 협력해, 어느 일방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엮”⁷⁾힌 태도를 보였다. 이태준이 신 체제기에 발표한 단편소설들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시기 저항은커녕 협력하는 내용이 없는 작품은 발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항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⁸⁾을 고려하면, 작품에 정치적 경향을 그리 드러내지 않는 이태준이 이 시기 특정 작품에서 갑자기 강한 민족적 경향을 보였다는 판단은 무리가 있다. 다른 작가도 그

4) 위의 글, pp.189~192.

5) 이태준, 『문학자의 가지비판』, 『중성』, 1946. 2, p.45(장영우, 『해방 후 이태준의 소설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16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3, p.186에서 재인용).

6) 김윤식, 『해방공간문학』,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2권, 한길사, 1985. pp.451~454.

7) 정종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28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p.246, 254.

8) 하정일, 『일제 말기 이태준 문학의 탈식민적 가능성과 한계』, 『작가세계』 제71호, 세계사, 2006, p.39.

렇겠지만 이 시기 발표된 그의 작품은 일정한 균열을 드러낸다. 이 균열은 일제에 대한 협력과 저항이 서로 맞부딪는 부분이다.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이 부분을 정확히 읽어낼 때 이태준 소설의 실체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만주기행」 이후 이태준이 발표한 작품 중 비교적 강한 현실 저항을 보인다고 평가받은 「영월영감」, 「농군」, 「토끼이야기」를 검토해 보려 한다. 이들을 좀 더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 그가 「만주기행」 직전에 발표한 작품 중, 비교적 사회성이 강하다는 「패강냉」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해 같은 수준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은 이들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들이 협력과 저항의 어느 한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판단하기보다는 작품의 균열을 읽어내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자 한다. 그의 많은 글들은 협력과 저항을 오가고 있으며, 그 정도도 각기 달라 그에 대해 판단은 좀더 종합적인 연구를 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만주기행」의 현실 인식

1930년대 전후부터 일제 말엽까지 지속된 만주 열풍은 만주국 건국, 중일전쟁, 대동아 공영권 확립으로 이어진 일제 식민지 정책과 깊이 관계를 맺고 있다. 1930년대 후반에 열린 한 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당시 국내의 황금광 열기를 만주로 이어가자 했고⁹⁾, 많은 신문·잡지들은 대륙을 탐낸 일제의 의도에 부응해 만주기행을 특집으로 꾸며 작가들의 만주여행을 독려했는데, 「만주기행」 역시 그 산물이다.

9) 이태준은 이 회의에서 토의한 금광, 만주광의 순서 그대로 그 소재를 소설화해 흥미롭다. (「만주가서 돈 벌려면」, 『삼천리』, 1936. 8)

기행문은 다른 장르의 글에 비해 더 진실하고 풍부하게 글쓴이의 감정을 드러내준다. 이 시기 만주 기행문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작가들이 시국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으며, 만주 현실을 어떤 시선으로 대했는가를 보여준다. 그 시선의 내용은 작가들의 응전력을 재는 척도¹⁰⁾가 된다. 『만주기행』도 논란 많은 이태준의 현실 인식태도를 밝히는데 중요한 구실¹¹⁾을 하리라 여겨진다.

이 시기 만주 기행문은 대개 일정한 틀을 취해 대상을 묘사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만주국 건국 이후 안정을 이룬 현실의 모습을 부각하려 했다 한다.¹²⁾ 이태준이 쓴 『만주기행』역시 이러한 형식을 취했다. 『만주기행』에서 평양을 떠난 이태준은 먼저 봉천 박물관과 동선당을 구경한 후, 신경행 특급 ‘아세아’호를 타고 가서 신경의 밤거리를 구경한다. 다음날 점심 무렵에 만보산 장자위푸(姜家窩堡)에 도착해 그곳을 둘러본 후, 그날 오후 세 시경에 그 곳을 떠나 귀국한다.

그는 출발 직전 침대 하단 칸에서 봉천이란 미지의 세계를 막연히 동경한다. 그 상상은 그가 과거 동경 “신흥 러시아 미술전(新興路西亞美術展)”에서 한 풍경화를 본 후에 느낀 “머릿속에 싱싱한 인상”(pp.270~271)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하늘에 뜬 구름밖에는 목표를 삼을 것이 없는 흙의 바다 우에 맨
 처음 이런 철로를 깔고 마차를 든 채 시운전을 했을 그들의 힘줄 일어선
 붉은 얼굴들이 번뜻 번뜻 눈 속에 지나간다. 모-든 무대는 오직 주연자에게만
 영예를 허락할 것이다.(273쪽)

10)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제86호, 한국어문학회, 2004, pp.343~345.

11) 김외곤, 『식민지 문학자의 만주 체험』-이태준의 『만주 기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p.303.

12) 서경석, 앞의 글, pp.346~347.

이태준은 이 대목에서 감개무량한 어조로 만주 벌판에 처음 철로를 놓은 이들이 대륙의 ‘주연’이 되리라 말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의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에게서 이 철도를 넘겨 받았다. 당시 정황을 따져서 문맥을 보면, 두 주어 ‘그들’과 ‘주연자’는 각각 러시아와 일본을 뜻하기 때문에 위 두 문장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그대로 이어놓은 것이 된다. 두 문장 사이에 이 둘을 잇는 말이 들어가야 의미가 정확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글은 일본이 미래 대륙의 주인이란 뜻으로 읽게 만든다. 이태준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 철도는 만주를 집어삼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망과 통한다. 만주국 건국 직후 부산에서 신경(장춘)까지 운행한 두 열차 ‘히카리’와 ‘노조미’는 각각 ‘빛’과 ‘희망’을 뜻하는 말로 대륙침략을 상징했다.¹³⁾ 이는 위 대목이 갖는 함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태준은 철도의 약탈적 성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고 “새 이발기계로 머리를 깎는 때 같은 감촉”(278쪽)을 주는 철도의 근대성을 예찬하고만 있어 모더니스트의 도락적 모습만 보여준다¹⁴⁾. 봉천행 기차 유리창에 비친 만주 원주민을 “남의(藍衣)의 토민”(272쪽)이라 한 이태준의 시선은 이방인, 제국주의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눈에 비친 중국은 야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는 봉천역 대합실에서 조선 농민들의 “빛났은 반물보통이, 끼여진 훗니불 붓다리들이 으레 호텔레텔이나처럼 크고 적은 바가지 쪽을 달고 있는 것”(274쪽)을 보게 된다. 또, 북쪽으로 “무심하게 즐거히 험한 타국에 끌리어 가는 젊은 계집들”을 보고 그 여자들의 “비린내 끼치는 살에나마 여기에선 새삼스런 골육감을 느”(275쪽)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이태준의 시선은 호기심 수준에 지나지 않는

13) 이호윤, 『신칸센 노조미. 히카리 그 이름에 숨겨진 역사』, 『국방일보』, 2013. 2. 6.

14) 김외곤, 앞의 글, pp.308~309.

다. 동포의 행색을 유례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긴 했지만, 그것이 『만주기행』의 핵심 요소로 자신이 식민지인임을 뼈아프게 자각하는 것이란 지적¹⁵⁾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시선은 이년 전 일본 여행 때 뱃전에서 마주친 동포들을 보고 떠올린 감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집안에 “가만이 도사리고 앉았어야 할” 만큼 “너무 더럽고 꾸기”여진 동포의 입성에서, 조선에 “토끼꼬리만한 문화”도 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¹⁶⁾. 뱃전에서 마주친 동포들 역시 만주 이민들처럼 생계 때문에 일본을 오간 사람들이다. 이 부끄러움은 그가 “제국의 근대화와 식민지적 근대화 사이에 존재하는 확연한 간극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¹⁷⁾이다. 자신의 미감에 안맞는 더러운 풍경에는 극도로 환멸감을 보였지만, 『만주기행』에서는 확연히 다른 정서를 보여주었다는 권성우의 지적은 이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¹⁸⁾. 두 기행문이 겉으로는 동포에 대한 환멸감과 친근감을 각각 말하고 있어 큰 골이 있는 것 같지만, ‘골육감’이란 표현은 수사에 불과하다. 두 글에서 시선의 근본적인 차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후 이태준은 봉천 시내 곳곳을 구경한다.

구석구석에 벽안 신사 숙녀들이 향기로운 커피-와 빛 고흔 과실들을 먹는 다. 나도 신선한 아침 메뉴가 주는대로 조반을 마치고 나의 신경행 특급 ‘아세야’의 급행권을 뷰로-에 부탁해 놓고 거리로 나섰다. 어디서 보았는지 쾌차(人力車) 두 대가 일시에 달려든다. 조선 인력거보다 훨씬 낮다. 조고만 장명등

15) 위의 글, p.304, 307.

16) 이태준, 『산양선의 우울』, 『조선중앙일보』 1936. 4. 23~24.(『이태준 문학전집』 제15권, 서음출판사, 1988년, p.117~118)

17) 이현진, 『동경기행과 만주기행을 통한 이태준의 시선과 인식 변화 연구』-이태준의 『무서록』(1941)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p.335.

18) 권성우, 앞의 글, p.194.

같은 것이 죄우에 달리고 앉는 데도 울긋불긋한 무슨 술을 많이 느리여 호사스럽다.(276쪽)

이 봉천 호텔의 아침 장면 묘사는 “식민지 도시에 온 식민지 모국의 지식인같은 한가로운 에그조티즘”¹⁹⁾을 한껏 보여준다. 이후 그가 식당에서 본 ‘로인소녀(露人少女)’를 묘사한 장면은 이국취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태준은 흡사 “영화 ‘죄(罪)와 벌(罰)’에서 본 ‘쏘니아’” 같은 소녀를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술만 못지 않는 독한 낭만”(279쪽)을 느끼게 된다. 또 신경에서는 ‘딴쓰홀’, ‘기방(妓房)’, 백계노인(白系露人)들이 사는 ‘카바레’ 등을 구경하는 등 이국취미를 한껏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근대 풍경은 제국의 식민지 근대화를 향한 “막연한 동경과 선망”을 일으키지 않으나 “성찰적인 문제의식”²⁰⁾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최종 목적지로 ‘만보산 사건’과 관계가 있는 ‘장자위후(姜家衛堡)’를 찾은 이태준은 소문과 달리 이민들의 생활이 안정된 것을 확인한다.

이밥이다. 현미밥처럼 누르다. 국은 시래기, 새우가 어찌다 한 마리씩 나온다. 배추김치가 놓였는데 고추보다는 고추씨가 더 찬란하다. 그리고는 유기쟁 첩에 통고추가 놓였다. 허영게 뜬 것, 시커멓게 언것들을 말렸다가 밥솥에 찢듯한데 저것을 어떻게 먹나 하고 주인이 먼저 먹기를 기다렸더니 먼저 그것을 그냥 간장에 푹 찍어 먹는 것이다. <…> “인전 뱃속은 아무걸루든지 채웁니다만…….”(286쪽)

19) 김철, 『몰락하는 신생(新生):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誤讀)』, 『상허학보』 제9호, 깊은샘, 2002. 8, p.140.

20) 고명철,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야의 <대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9집, 한국문학회, 2008. 8, p.94, 96.

이 기행문 소재목처럼 “배는 부른 마을”(285쪽)이 되었지만, 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란 것은 조악하기 짝이 없다. ‘채표(彩票)(복권-필자 주)’에 당첨되어 고향산천에 돌아가는 일을 “유일한 희망”(289쪽)으로 삼고 있다는 말에서 보듯 이민들의 삶은 김철이 지적한 바 “평화롭고 넉넉한 일상”²¹⁾은 아니다. 이처럼 이태준은 이민들의 열악한 처지를 그리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들을 보는 이태준의 심사가 그다지 비감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는 앞서 봉천역대합실에서 팔려가는 여인네들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골육감’이란 표현을 썼다. 이태준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싶을 때면 무심한 어조로 이런 류의 표현을 ‘특’ 내어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태준은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장장 14일에 걸쳐 만주를 여행하면서 ‘만주기행’을 썼다. 이 여행 자체가 당시 국책에 부응한 결과 생겨난 것이어서 이태준이 내심 만주 여행을 원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만주기행』이 쓰이게 된 정황 상 그 핵심은 이민들의 삶이 담긴 ‘장자위푸’ 방문 기록이어야 한다. 그가 당국이 원하는 이민의 모습을 그리든 힘겨운 삶을 여과없이 담아내든 그것은 그 다음에 오는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민촌 방문 기록은 이태준이 귀국 날 점심 때부터 오후 세 시까지 불과 세 시간 남짓 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 것이 전부다.

이민촌 방문이 여행의 궁극적 목적인데도 그 시간은 전체 여행 시간의 백분지 일에도 못 미친다. 그 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따져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 들여야 했던 다른 많은 시간 동안 이태준은 이민 중인 동포들의 모습에 잠시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시간은 봉천, 신경에서 낭만적인 이국 취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다. 김외곤은 『만주기행』을 검토하면서 “모더니스트 이태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만주국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리얼리스트로 변모”²²⁾

21) 김철, 앞의 글, p.143.

했다고 지적한다. 이 지적을 『만주기행』의 구성에 대입해 보면, 이태준은 만주 여행 13일 동안 모더니스트의 면모를 보여주다가 불과 하루, 그것도 세 시간 만에 급격한 리얼리스트로 변모했다는 말과 같다. 이민촌 방문 하루 전날에 이태준을 완벽하게 ‘리얼리스트’로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만주기행』에 없다. 이태준이 이곳에서 세 시간 남짓 머물렀지만 기행문의 삼분지 일을 할애한 점을 혼동해 이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은 기행문 마지막에 “그 유구(悠久)함이 바다보다도 오히려 호젓하였다”(290쪽)고 해 당시의 긴박한 현실을 지워버리기까지 했다.

이태준은 평소 『문장강화』에서 기행문은 떠나는 즐거움과 노정(路程), 객창감, 곧 애수와 지방색을 드러내야 한다²²⁾고 강조했고, 이를 『만주기행』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은연 중 제국주의자의 시선과 낭만적인 이국 취미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이후 이어지는 『목포조선현지기행』에서 일제에 협력하는 모습을 노골화했고, 『소련기행』, 『혁명절의 모스크바』, 『위대한 새 중국』에서 정치적 색채를 확연히 드러냈다. 『만주기행』은 노골적인 자세 대신 제국주의의 은밀한 시선을 취해 이러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이태준이 이 시기 이후 발표한 단편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단편소설들은 이전 작품에 비해 아주 작지만 의미심장한 차이를 담고 있다. 이 차이는 그간 논자들이 민족적, 저항적인 것으로 평가해 온 그의 작품들 내부에 존재하는 간과하기 어려운 균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22) 김외곤, 앞의 글, p.312.

23) 이태준, 『문장강화』(『이태준 문학전집』 제16권, 서음출판사, 1988), pp.132~146.

Ⅲ. 『만주기행』을 전후한 소설의 변화 양상

1. 문화 층위에서 저항하기-『패강냉』의 경우

『패강냉』에서 소설가 ‘현’은 평양의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朴)’ 과 ‘부회 의원이자 실업가인 김(金)’을 만나러 간다. 현은 조선어 “시간이 반이 없어진” 탓에 “찌싣찌싣 붙어”서 살아가는 박의 모습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²⁴⁾게 된다. 이 장면은 1937년 4월 이후 일제가 조선어를 말살하고자 훈령을 내려 일선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가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기 직전의 모습에 해당한다. 1938년 3월 3일이 되면,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개정 공포해 조선어과목을 정과목에서 수의과목으로 변경한다. 일제는 이 조치를 통해 조선어 교육을 금지.폐기하고자 했다. 현은 시가지를 걸으면서 평양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깨닫게 된다.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귀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墳墓)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사에게 물어 보니 경찰서라고 했다.(105쪽)

이 대목을 “전통과 문화를 압살하는 제국주의의 표본”²⁵⁾으로 읽기는 어렵다. ‘현’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건물이 ‘경찰서’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명색은 건축물이면서 무슨 묘지처럼 돼먹지 않은 꼴로 지어진 점 때문에 경찰서를 비판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평양은 풍속 면에서도 전통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곳이다.

24) 이태준, 『패강냉』, 『三千里文學』, 1938. 1(『이태준문학전집』 제2권, 깊은샘, 1995, p.105). 이하 쪽수만 표시함.

25) 장영우, 『<농군>과 만보산사건』, 『현대소설연구』 제3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p.170.

현은 평양 여자들의 머릿수건이 보기좋았었다. 단순하면서도 흰 호접과 같이 살아 보였고, 장미처럼 자연스런 무게로 한 송이 얹힌 땀기는, 그들의 악센트 명랑한 사투리와 함께 ‘피양내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었다.(105쪽)

이 머릿수건의 멋을 알고 있는 이는 기생인 영월이와 ‘현’ 두 사람에게 불과하다. “수건값허구 당기값이 얼만지”만을 따져 수건을 못 쓰게 한 부회 의원 ‘김’이나 그것을 보고 이제 “평양두 서울과 별루 지지않”(105쪽)게 되었다는 운전사는 그 사회적 지위의 고하에도 불구하고 멋을 모르는 무식꾼인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실용’을 곧 바로 ‘근대’로 환원해버리는 자들이다. ‘현’이 부회 의원 ‘김’에게 “술만 필요허냐? 고유한 문화 필요치 않구?”(110쪽)라거나, “기생을 불러 놓고 땀스나 하는 친구들은 내 일찍부터 경멸하는 발세”(112쪽)라 한 것은 경찰서의 모양새를 비판한 대목과 더 붙여 그의 관심이 문화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문화는 일제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와 자본주의라는 속악함에 대비되는 ‘그 무엇’”²⁶⁾이다. 물론 ‘현’은 근대 도시의 변화로 나빠진 도시의 풍속과 인심을 꺼린 것²⁷⁾이지 근대화란 현실의 변화 과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²⁸⁾. 여기서 머릿수건은 아름다운 ‘피양내인’의 전통이면서, 경제성, 효율성만 중시하는 잘못된 근대화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이 사라진 평양은 ‘현’에게 더 이상 예전 같은 아름다움을 줄 수 없다. ‘현’이 찾는 평양은 그의 가슴 속에만 남아 있는 상상의 공간

26) 강명수, 『체호프와 이태준의 소설세계에 나타난 미와 현실 : <6호실>과 <패강랭>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19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07, p.136.

27) 정연희,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이태준 문학의 의미와 가치』, 『현대소설연구』 제3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p.179.

28) 유철상,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고전의 현대화와 수단으로서의 고전주의』, 『현대소설연구』 제2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p.80.

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실이 평양은 “또 한 가지 의미에서 폐허(廢墟)라는 서글픔”(105쪽)을 줄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이 상황에서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 곧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대목은 조선어 시간 폐지, 창씨개명 같은 좀 더 혹독한 시련이 이어질 것을 암시해준다.

‘현’이 찾는 평양은 ‘실용만 중시하는 근대’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며, 그 곳은 현의 의식 속에서 ‘과거’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이태준은 사소설 형식을 사용해 기억 저편에 있는 평양을 불러내어 오염된 현재의 평양을 비판했다. 이태준은 이러한 설정을 사용해 체제 협력 문제를 용이하게 비껴갈 수 있었고,²⁹⁾ 당대 문화 현상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해 오히려 그 현상을 비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³⁰⁾ 이는 『폐강냉』이 “자본주의적 현실 원리에 대한 지식인의 자의식적 비판”³¹⁾을 좀더 구체화하여 주로 문화적 층위에서 일제에 저항했다는 뜻이다. 이 작품은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내용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현실을 에둘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주제와 관련한 현실의 속내가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상세히 다루지 않는 이 태도는 이 이후에 발표한 작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2. 정치 층위에서 협력과 저항 오가기

1) 정황 흐리기와 시간 뒤섞기-「영월영감」, 「농군」의 경우

「영월영감」은 1930년대 조선 전역에 불었던 금광열풍을 다룬 작품이다.

29)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오스키 사카에,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 그룹,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제38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pp.157~158.

30)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이태준의 위상」, 『상허학보』 제13호, 상허학회, 2004, p.35.

31) 강대원, 「상허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 p.91.

영월(寧越) 영감은 일가친척과 소식을 끊은 지 십수 년후에 조카인 성익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큰돈을 빌려 달라 한다. 영문도 모른 채 돈을 마련해 준 성익은 영감이 폭발사고로 입원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금광에 미쳐 있음을 알게 된다.

영감은 “세도가 정상시가 아닌 때에 득세(得勢)를 하는 것은 소인잡배의 무리”라 해 벼슬을 멀리 했지만, “기미년 일에 사오 년 동안 옥사 생활을 거친 후”로 “한동안 경향 각지로 출입이 잦았다. 영감은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가대와 종중(宗中)의 위토(位土)까지 잡혀”³²⁾ 쓸 정도로 많은 땅을 팔아치웠다. 이 대목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막대한 돈을 금광에 쏟아부었다는 사실뿐이다. 이처럼 무모한 영월영감의 행동 이면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숨어 있다.

『영월영감』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30년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념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앞 다투어 금광으로 달려간 ‘황금광(黃金狂) 시대’³³⁾였다. 이때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정상으로 볼 만큼 모두가 금에 눈이 멀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이전의 금점판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무지렁이들의 무대”로 금점판은 “‘사람 못된 놈’ 취급을 하던 그런 시절”³⁴⁾로 기미년 이전의 됴됨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월영감이라면 전혀 손 댈 만한 사업이 못된다. 그가 1930년대에 금광에 손을 대었다면 절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돈에 눈 먼 사람으로 변한 것 말고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각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영월영감이 1923, 4년에 금점판에 뛰어든 것을 보고서 그가 1919년에 옥고를 치른 일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영월영감은 아주 자연스럽게

32) 이태준, 『영월영감』, 『文章』, 1939. 2-3. (『이태준문학전집』 제2권, 깊은샘, 1995, pp.117~118). 이하 쪽수만 표시함.

33)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6, pp.20~28.

34) 위의 글, p.151.

지사적 인물이 되게 된다. 이후 그가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은 그를 민족주의자로 해석하게 만든다.

영감은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성익에게 “서른둘! 호랑이 같은 때”인데 “왜들 가만히들 있니?”(125쪽)라고 질타한다. 문자 그대로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늙고 쇠약한 자기 대신 성익이 같은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영감은 “금을 금답게 쓰지 못하는 자들이” 돈을 캐기 때문에 “땀이 울 게”라고 탄식을 하면서 “힘없이 움직일 수”(124쪽) 없다 한다. 그는 성익이 골동품을 모은 것을 보고는 “처사(處士) 취미”라 비판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루 자꾸 나가야”(120쪽) 한다고 역설한다. 문제는 영월영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그가 ‘3.1 운동 후 옥살이를 했다’, ‘비정상적 시기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말밖에 없다는 데 있다. 위 인용에서 보듯 영감이 한 말들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 그를 지사로 보려는 입장이라면 진술의 이러한 모호함이 신체제기의 검열을 의식한 우회적 표현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감이 입에 담은 ‘일모도원’, ‘왜 가만히 있니’, ‘금을 금답게 쓰지 못하는 자’, ‘힘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이란 표현은 어떤 문맥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지사(志士)’와는 정반대의 인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를 두고 거꾸로 비판한다면 그의 발언은 ‘은유’를 가장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위 진술들 전체를 두고 그 논리적인 관계를 아무리 따져보아도 ‘영월영감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금광에 투신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끄집어낼 수는 없다. 영월영감이 금광에 투신하게 된 것은 3.1 운동으로 옥사를 겪은 후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 듯”(118쪽)하다고 되어 있다.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읽기에 따라서는 영감이 옥고를 치른 후 ‘돈이 제일’이란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매우 활동적이고 정력적인 인물”³⁵⁾이 된다.

이태준이 『영월영감』에서 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이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그는 『만주기행』이전의 글에서 당시 전국을 휩쓸던 ‘황금광(黃金狂)’ 열풍을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세태를 “산에서는 금광이나 하고 벌목이나 하고 경치를 팔어 잡객이나 모여들게 하는 <...> 거짓 문명”³⁶⁾이라 비판했다. 또, 멀쩡한 논바닥을 파헤쳐 “모다 사금(砂金)관”을 만든 것을 보고 소로우의 말을 인용해 “노래하는 샘물을 끊어버리며 아름다운 산(山)과 언덕을 버리 둥지처럼 파들어 가면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금(金)을 땅 속에서 찾는구나! 찾아야 할 금(金)은 제 마음 속에들 있는 줄 모르고”³⁷⁾라 비판했다. 이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태준은 완전히 판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 2년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영월영감의 말을 따져보면 된다.

힘 없이 무슨 일을 하나? <...> 금 같은 힘이 어딴나? 금 캐기야 조선같이 좋은 데가 어딴나? 누구나 발견할 권리가 있어 누구나 출원하면 캐게 해. 국고 보조까지 있어, 남 다 허는 걸 왜 구경만 허구 앉았어?(122쪽)

영감의 이 말 이면에는 당시 조선을 뒤흔든 ‘사대 광풍(狂風)’³⁸⁾의 하나인 금광 열풍의 실상이 숨어 있다. 이 금광열풍은 자연 발생적인 외국의 ‘골드러시’와는 완전히 다른, 대륙전쟁을 눈앞에 둔 일제가 절실히 필요한 금을 조달키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붐이었다. 위 영감의 말에서 보듯, 일제는 1932년부터 산금장려 정책을 시행했고, 금수출 재금지 이후에는 금

35) 유철상, 앞의 글, p.84.

36) 이태준, 『산의 추억』, 『신생(新生)』, 1931. 6. (『이태준 문학전집』 제15권, 서울출판사, 1988, p.44)

37) 이태준, 『사금. 광산. 곡선』, 『조선중앙일보』, 1936. 4. 20.(위의 책, p.112)

38) 우석(愚石), 『현대조선의 사대광』-만주광. 금광광. 미두광. 잡지광-, 『인문평론』, 1939. 11 참조.

광업 장려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³⁹⁾ 당국이 민간에 국고 보조까지 주면서 채굴을 독려했던 것은 땅속 황금 대부분이 채산성 없는 저품위 금광석이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월영감』이 발표된 1939년에 조선은 세계 여섯 번째 산금국에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 희한한 현상은 일제가 강력한 ‘산금정책’을 주도했고, 그에 따라 ‘무시도 폭등한 비정상적인 금값’으로 채굴이 활성화해 나타난 비정상적인 결과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월 영감은 “금은 아직 무진장”이라면서 “실패를 잘만 해서 실패된 원인만 밝혀 나간다면야 실패가 많아질수록 성공에 가”(124쪽)깝다고 한다. 땅속 황금 대부분이 저품위 금광석이란 기본 사실도 모르면서 하는 영감의 이런 말은 거꾸로 그가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가를 반증해준다. 그가 십수 년간 문중 땅을 다 날리고 조카 돈까지 빌려 금광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허술함 때문이다. 영감은 자신이 비난한 ‘투기꾼’ 바로 그 사람이 된다. 이에 따르면 『영월영감』의 행위를 ‘민족의 재생’과 연관지은 신동욱의 평가⁴⁰⁾는 수용하기 어렵다. 또, 영월영감이 “민족적 의기와 절의를 지키는 인물”⁴¹⁾로 “식민지 조선의 자유의 확대와 힘의 획득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처절한 신념으로 금광꾼이 되”⁴²⁾어 “민족중흥을 열망”⁴³⁾하는 인물이란 해석도 근거 없는 판단임을 알 수 있다.

대신 불과 2년 전에 금광 열풍을 비난한 이태준이 금광을 옹호하는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만약, 이태준이 이같은 당대 현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그는 작가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 해야 한다. 그 반대

39) 전봉관, 앞의 글, pp.280~298.

40) 신동욱, 앞의 글, p.286.

41) 위의 글, p.284.

42) 정연희, 앞의 글, p.193.

43) 최용석,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2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p.212.

라면 그가 알면서도 현실을 왜곡했다고 봐야 한다. 『영월영감』은 성익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금캐기에 더 매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익의 처사 취미가 영감의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감의 말처럼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은 ‘문명’을 가진 일제가 승리하는 곳이다. 앞서 『패강냉』에서 실용만을 좇는 잘못된 근대를 비판하던 이태준은 『만주기행』 이후에는 그와 정반대로 실용주의와 문명을 역설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이태준 문학에 협력과 저항이 공존함을 지적한 것처럼, 이 작품의 성격 역시 그 어느쪽에 속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 정황을 흐려 동일한 내용을 정반대의 평가를 불러온 진술 방식이 가진 문학사적 함의는 이태준 문학 전반을 따져가면서 해명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월영감』은 작품 내 시간과 구체적인 정황을 흐리는 진술을 교묘하게 배합함으로써 작품 해석에 혼선을 빚게 했다⁴⁴⁾. 이태준은 이 작품 뒤에 발표한 『농군』에서 역시 이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다.

이태준은 국책이민기인 1939년에 발표한 『농군』에서 떠나온 ‘창권 일가’가 다른 농업이민들과 합세해 원주민의 방해를 딛고 수전(水田)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작품 속 배경은 ‘만보산 사건’이 일어났던 자유이민기에 속하는 1931년이다. 당시 일제는 조선 농촌의 기반을 파괴해 식민지 농정을 실시하고 남은 사람을 만주로 옮겨 도구로 활용코자⁴⁵⁾ 했다. 중국인들은 처음에는 이민들에게 우호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일제의 ‘전위대’로 인식해 경계하게 된다.

44) 금광투기를 다룬 『청춘무성』 역시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참조 1) 김도희, 『일제 말기 이태준 소설의 대일 협력적 성격』, 『문화콘텐츠연구』제10호, 동의대학교, 2005, pp.294~295, 2) 장성규, 앞의 글, 153쪽.

45) 참조 1) 박영석, 『일제하 한국인 만주이주에 관한 연구』-일제의 한국인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10집, 1979, 2)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권, 어문각, 1967, 159, p.162.

작품 서두에 제시된 창권 일가의 모습은 그리 밝지 않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햇볕을 못 본 얼굴”에 “너리도 없는 이빨이 누렇게 보이도록 창백한”⁴⁶⁾ 창권 아내는 삶에 지친 이주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이 『농군』을 근거 없는 희망을 노래한 다른 국책이민 소설의 인물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 결말에 이민들이 원주민들의 방해로 물리치고 밧도랑을 트게 됐을 때도 작가는 인물들을 미래의 희망에 달뜬 모습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창권은 더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어 노인의 시체를 안은 채 광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내 재쳐 일어났다. 어머니와 아내에게 부축이 되며 두 주먹을 허공에 내저었다. 뭐라고인지 자기도 모를 소리를 악을 써 질렀다. <...> 물은 대간선 언저리를 철버덩철버덩 떨궈 휩쓸면서 두간통 밧동이 뿌듯하게 내려 쏠린다. / 논자리마다 넘실넘실 넘친다./ 아침 햇살과 함께 물은 끝없는 별판을 번져 나간다.(158쪽)

위 장면은 원주민과 사투한 끝에 밧도랑을 트은 이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원하던 결과를 얻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산자와 죽은자의 모습을 대비해 이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비극성, 어두움을 더 극적으로 강조”⁴⁷⁾하고 있다. 그 결과 “애수(哀愁)”의 미학에서 벗어나 “비극(悲劇)에까지 접근하는 듯한 긴장한 세계”를 구축했다는 고평⁴⁸⁾을 받았다. 『농군』은 현실주의 수법을 취함으로써 이태준의 다른 단편소설들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작품이다. 그런데다 신체제기의 ‘국책이민’과 관련 깊은 내용을 다룬 결과 이

46) 이태준, 『농군』, 『문장』, 1939. 7.(『이태준문학전집』 제2권, 깊은샘, 1995, p.143)

47)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만보산 사건에 대한 한중일 작가의 민족인식 연구(1), 『현대소설연구』 제4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p.196.

48) 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pp.322~323 참조.

평가 이후로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게 된다.

만주 개척, 혹은 ‘만보산 사건’을 다룬 자체가 민족의식을 표출한 것⁴⁹⁾이라거나 국책사업에 부응한 것이란 평가⁵⁰⁾는 모두 명백한 소재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농군』을 긍정하던 부정하던 다수의 기존 연구는 이 작품이 배경으로 삼은 ‘만보산 사건’과 일치 여부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허구와 사실을 동일시한 ‘심각한 범주 혼동’⁵¹⁾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김재용은, 자신이 지향한 애수의 세계가 갖는 한계를 깨달은 이태준이 집단적 주체를 모색한 결과 도달한 세계⁵²⁾가 『농군』이라 평가했다. 이태준이 『농군』을 발표한 이후에도 『석양』이나 『무연』같이 애수 어린 작품을 계속 썼고, 『농군』에서 ‘집단주체에 대한 모색’이라 할 만한 구체적 모습을 찾아내기 어려운 점에서 이 평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농군』의 화자는 만주인을 ‘토민(土民)’이라 깔보는데, 이는 이태준이 『만주기행』에서 만주인을 보던 시선과 똑같다. 만주인들이 자기 목숨이 걸린 수전(水田) 개척에 반대하는 행위를 ‘무지’하다고 무시하는⁵³⁾ 태도는 자민족 중심의 폭력적 시선이다. 이 시선이 있는 한, 『농군』이 이민과 만주인이 공생할 가능성을 찾아냈다⁵⁴⁾는 지적은 부적절하다. 또, 위와 같은 비극적 결말은 열린 전망을 요구하는 현실주의 문학과 거리가 있다. 이 결말에서 “치열한 민족주체성의 실현의지”⁵⁵⁾라든가 “미래의 청사진”⁵⁶⁾을 읽어내기

49) 三枝壽勝, 『李泰俊作品論』-長篇小説お 中心として-, 九州大學 文學部 『史淵』第百十七輯, 1980, pp.55~56.

50) 박진숙, 『이태준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p.99.

51) 하정일, 『1930년대 후반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성찰』, 『배달말』 제34호, 배달말학회, 2004, pp.29~35.

52) 김재용,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2002년 봄, 실천문학사, 2002. 2, p.176.

53) 김철, 앞의 글, p.135.

54) 고명철, 앞의 글, p.93.

55) 신동욱, 앞의 글, p.291.

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쯤에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작품에 비해서 완전히 경향이 다른 『농군』이 나오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앞서 『영월영감』을 발표된 시점도 그랬지만, 『농군』이 발표될 1939년 당시의 객관적 정세 역시 심상치 않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일제는 작가들에게 국책에 부응하는 작품을 쓸 것을 강요한다. 그 과정에서 대두한 것이 바로 ‘생산소설론’이다. 『영월영감』이 그랬듯이 『농군』을 노골적인 국책문학에 속한다 할 수는 없다. 둘 다 당국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바 『농군』은 현실주의 수법을 대폭 차용한 생산소설⁵⁷⁾로 봐야 한다. 이 시기에 생산문학을 유독 강조하는 글⁵⁸⁾을 계속 써댄 임화가 『농군』을 수차 고평⁵⁹⁾한 것은 이 둘이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결과적으로 친일한 것이지 실제 “창작 의도와는 무관”⁶⁰⁾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성 강하고 민족서사로 볼 수도 있는 작품이 검열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의심을 품게 한다.⁶¹⁾

앞서 이태준이 신체제기 당국의 바람에 부응해 만주이민 개척촌을 여행한 결과 써 낸 글이 『만주기행』임을 살펴본 바 있다. 위낙 국내에 잘 알려

56) 최용석, 앞의 글, p.212.

57) 김외근, 앞의 글, pp.316~317.

58) 참조 1) 임화, 『농민과 문학』(『문장』, 1939. 10) 2) 『일본 농민문학의 동향』(『인문평론』, 1940. 1), 3) 『생산소설론』(『인문평론』, 1940. 4)

59) 참조 1) 임화, 『단편소설의 조선적 특성』, 『인문평론』, 1939. 10, p.134. 2) 임화, 『창작계의 일년』-중견 십삼인론, 『문장』, 1939. 12, p.208. 3) 임화, 『현대소설의 귀추』-창작 32인집을 중심으로, 앞의 책, p.428.

60) 민충환, 『상허 이태준론(2)』-〈농군〉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7, p.25, 30.

61) 김희숙,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식민주의』-『문장』지 소설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제45호, 문창어문학회, 2008, p.16.

진 사건인데다 그 현장까지 다녀왔으니 만보산 사건을 소설화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농군』의 의미를 상반되게 평가한 논자들 중 다수는 그 평가의 근거로 ‘만보산 사건’과 『농군』의 일치 여부를 문제 삼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농군』의 내부 시간과 그것이 발표된 외부 시간의 상위(相違)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⁶²⁾.

여기서 이태준이 국책이민기인 1939년에 『농군』을 발표하면서 굳이 시간상 그보다 한참 앞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배경으로 삼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앞서 『영월영감』에서 이태준은 영월영감이 금광에 뛰어들은 시점을 3.1운동이 있었던 시점에 덧대 기술함으로써 해석의 혼선을 초래하게 했다. 이는 당국의 현재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 반대편이 던지는 비난을 동시에 피할 방법을 강구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태준은 『만주기행』시 집단이민 지역을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국책이민의 실상을 묘사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보산 사건’을 소재로 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민들이 중국군대, 원주민과 싸워 수전을 ‘개척’한 사실을 ‘국책이민’을 홍보하기에 더 없이 적절한 내용이다. 장작림이 반일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 ‘자유이민’기에 이민들이 겪은 고초를 소설화할 경우 홍보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많았으리라 봐야 한다. 또, 근 십 년이나 지난 일이라 해도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신문 지상을 통해 본 것과 그 일을 직접 겪은 ‘장자위푸(姜家窩堡)’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종합해 묘사하기도 상당히 용이했으리라 여겨진다. 또, 원주민들과 조선 이민 간의 대립을 갈등의 축으로 설정해 중국과 일본 군대의 흔적을 희미하게 하거나 아예 지워버림으로써 친일이나 반일 어느쪽도 강한 비판을 할 소지를 줄일 수 있었으리라

62) 고명철은 『농군』이 이를 통해 식민주의 담론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비판했다고 본 (앞의 글, p.91) 반면, 김철은 이를 통해 그 시기에 군벌과 토민의 횡포가 사라져 이민들이 살 만해졌다는 점을 강조해 국책에 부응했다고 보았다. (앞의 글, p.145)

보인다.

이러한 고려의 중심에 ‘경계 흐리기’가 자리잡고 있다. 이태준은 『영월영감』에서 그랬듯이 여기서도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신체제기에 검열과 압박이 일상화하면서 작가들은 쓰기 싫은 것을 억지로 써야 할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쓰고 싶은 것을 쓰지 못한 경우 역시 많았으리라 여겨진다. 이 시기에 일본군이나 경찰을 드러내놓고 부정하는 묘사는 불가능한 일⁶³⁾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음모나 모략을 폭로하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서 못했⁶⁴⁾을 수도 있다. 이태준은 『농군』에서 분명 일제가 강요한 것,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⁶⁵⁾으려 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있다.

이태준은 『영월영감』에서 작품 내 시간과 구체적인 정황을 흐리는 진술을 교묘하게 배합하는 방식을 쓴 것처럼, 『농군』에서는 작품 내부의 시간과 그것이 발표된 외부 시간의 상위(相違)를 사용해 작품 해석에 혼선을 빚게 했다. 또, 한편으로는 수전(水田) 개척에 항의하는 원주민을 ‘토민(土民)’이라 비하하면서 그들이 무지하다고 폄하하는 등 제국주의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⁶⁶⁾. 이처럼 『농군』은 협력과 저항의 경계를 오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그러한 이중성의 균열을 드러내기까지 한다. 지금껏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농군』은 앞서 임화가 평가한 것처럼 형상화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하겠다. 하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당국에 마

63)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 양상, 『근대문학연구』 제17호, 2008. 참조.

64) 김호웅, 『만보산 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 제5회 식민주의와 문학 학술회의 자료집, 『만주국』과 동아시아문학, 2009. 9. 26.

65)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만보산 사건에 대한 한중일 작가의 민족인식 연구(1), 『현대소설연구』 제4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pp.196~197.

66) 김철, 앞의 글, p.135.

지못해 협력하면서도 혐의는 회피하려 하는 균열상을 담고 있다 하겠다.

2) 일상과 체제 결합하기-『토끼이야기』의 경우

사소설(私小說) 형식의 작품인 『토끼 이야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폐간된 1940년 8월 이후 작가 자신이라 할 ‘현’이 겪는 곤궁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패강냉』의 ‘현’이 사상가에 가깝다면, 이 작품의 ‘현’은 생활인에 가깝다. 현의 아내는 혼인 초에는 조슬란의 자장가를 부르고 브라우닝의 시를 읊는 등 ‘교양 있게’ 살지만, 아이가 들이 될 때까지 돈에 시달리자 “음악이 밥 주냐!”고 할 만큼 현실적이 된다. 셋째 아이가 들어서자 현은 아내의 제안을 좇아 퇴직금을 다 털어 넣어 토끼를 키우는데,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간다.

‘현’이 기르게 된 토끼는 우리 전통 사회에서 가축으로 여기는 소, 말, 양, 돼지, 개, 닭 등 소위 ‘육축(六畜)’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⁶⁷⁾이다. 토끼사육은 대한제국 때 고종이 농무목축시험장을 설치하고서야 본격화⁶⁸⁾한 축산업과 궤를 같이한다. 뒤늦게 시작한 토끼사육이 어떻게 이처럼 대량사육 짐승으로 변모했는지는 현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누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일 년이 못 돼 오십 평 마당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퍼지었고, 누 집에서는 이백 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 되어 매월 평균 칠팔십 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이었고, <...> 이런 것은 시대가 메가폰으로 소리쳐 요구하는 명랑하고, 건실한 생활일 수도 있다는 점에 현은 더욱 든든한 마음으

67) 김동곤 외, 『한국가축개량사』, 삼우상사, 1980, p.137.(유인혁, 『이태준의 『토끼이야기』에 나타난 자연과 근대』, 『인문연구』 제6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8, p.172)

68) 김영진·홍은미,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 1884~1906)의 기구변동과 운영』, 『농업사연구』, 한국농업사학회, 2006, p.74.(위의 글, p.171, 172에서 재인용)

로 토끼 치기를 결심하였다.⁶⁹⁾

‘현’은 아내가 토끼사육에 뛰어들 결심을 품게 한 “한때 이름 높던 피아니스트”의 집을 방문한다. “거칠고 풀물이 시퍼런 손”으로 이들을 맞이한 피아니스트는 “이백 원을 들여 지금은 매달 칠팔십 원씩을 수입”(175쪽)하고 있는 중이다. 소설가인 ‘현’이나 이 피아니스트 모두 촉망받는 예술가다. 그런 이들이 토끼사육에 뛰어들 현실은 당시 생활의 열악함을 증명해주는 동시에 토끼가 환금성이 대단히 높은 동물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1930년대에 조선 전역에 분 금광열풍이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제가 치밀한 계획 하에 조성한 것임은 『영월영감』에서 살펴본 바 있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토끼사육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다. 이 사육은 당시 점점 퍼져가던 전선(戰線)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1924년에 소개됐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아 부진을 면치 못했던 토끼사육은 1929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당시 일제는 육군에 이어 공군의 방한피복 소재로 토끼 가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토끼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토끼 기르기에 몰두한 일은 당시 일본군의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토끼 가죽 생산을 늘릴 필요가 생겨난 저간의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⁷⁰⁾. 현이 몇 번씩이나 힘 주어 말한 “시대가 메가폰으로 소리쳐 요구하는 명랑하고, 건실한 생활”(175쪽)이란 다름이 아니라 전시 총동원 체제가 요구한 일을 이처럼 적극적,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일을 뜻한다.

명치 유신을 통해 뒤늦게 자본주의에 뛰어들었지만, 자본을 축적할 시간적 여유가 모자랐던 일본은 대만, 조선을 식민지로 삼음으로써 그 문제를

69) 이태준, 『토끼이야기』, 『文章』, 1941. 2.(『이태준문학전집』 제2권, 깊은샘, 1995, p.175)

70) 유인혁, 앞의 글, p.178.

해결코자 했다. 이후에도 일제는 자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같은 제국주의적 침탈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일제는 전쟁을 수행키 위해 사회 전방위로 ‘총동원체제’를 도입해 생산을 장려했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채찍보다 강한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영월영감』에서 ‘산금령’, ‘조선광업령’을 발표해 금광 붐을 조성한 후 금을 수탈해 간 행태와 같은 맥락이다. 너나할 것 없이 토끼 기르기에 열중하는 현실은 “명랑하라, 건실하라”를 “확성기로 외”치는 당국의 ‘전시 총동원 체제’가 허부구조까지 제대로 먹혀들었음을 보여준다. ‘현’ 일가는 삶의 방편으로 토끼사육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제의 정책을 거들게 된다. 즉, 여기서 생계와 국책은 아주 자연스럽게 만난다. 『쾌강냉』의 문화주의는 『영월영감』에서 그랬듯 여기서도 실용주의로 대체되고 있다. ‘현’은 세상을 “실용적으로 볼 것을 강요당”⁷¹⁾하고 있다. 『토끼이야기』의 이 같은 말이 “작가의 본마음일 것이라고 추단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⁷²⁾가 일리가 있다 해도 이태준이 사소설 형식을 “모종의 저항 및 투쟁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주장⁷³⁾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일상성에 함몰되는 것이 “일제의 억압적 상황을 순응하며 견디는 또 다른 소설가의 저항 방법”이란 주장⁷⁴⁾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문제는 ‘현’이 생각한 만큼 현실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식량 부

71) 우정덕, 『이태준의 작품에 드러난 자기상과 그 결락』-수필집 『무서록』과 ‘심경소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1집, 2011. p.184.

72)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07, p.256.

73) 위의 글, p.257.

74) 이상재, 『1930년대 소설의 서사의도와 사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6, p.150.

죽으로 토끼 사료 값마저 올랐고, 군수용 가족이 부족해 “가족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은 불어난 토끼를 모두 죽여 없애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을 본 아내는 “표정을 상실한 얼굴”로 “피투성이 두 손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억지로 쟁기여 웃음을”(183쪽) 지으면서 토끼 가족을 두 마리나 벗겨 놓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닭의 흘겨 뜬 죽은 눈이 무서워 신문지로 덮어놓고야 썰던”(178쪽) 사람이다.

『토끼이야기』는 ‘현’을 주인공으로 사소설 형식을 취한 점에서 『패강냉』과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둘의 차이점은 후자가 이야기 초점을 당대 시대상에 맞춘데 반해 전자는 ‘현’ 일가의 생활고에 맞추었다는 데 있다. 또 문화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패강냉』의 ‘현’이 소극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은 반면, 『토끼이야기』의 ‘현’은 아주 짧지만, 일제가 원하는 말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앞서 『영월영감』, 『농군』에서는 작품 내 시간과 정황을 흐리는 진술을 교묘히 배합하거나, 작품 내·외부 시간의 상위(相違)를 통해 해석에 혼선을 빚게 했다. 이렇게 해 작품이 비판적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든 한편, 당국의 요구도 거스르지 않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이와 달리 『토끼이야기』는 서술의 초점을 ‘현’의 생활 환경에 한정된 반면, 국책에 호응하는 명시적인 발언을 보여준 점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태준의 사소설이 일본의 그것과 달리 작가와 주인공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⁷⁵⁾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 ‘조선’이 폐간되자 “직업도 인전 없구, 신문소설 쓸 데두 인전 없구”(175쪽)라 했지만, 이태준은 당시 연재소설을 꾸준히 발표할 지면이 있었다. 방민호는 이태준이 일본

75) 방민호, 『일제말기 이태준 단편소설의 ‘사소설’ 양상』, 상허학회 편, 『한국문학과 탈식민주의』, 2005. 참조.

사소설 형식에 다시 허구를 가미해 ‘새로운 사소설’ 형식을 만든 이유가, 시대 현실에 맞서거나 벗어나려는 자신의 사상적 태도를 담아내려 했기 때문이라 한다. 다시 말해 시대 현실에 묶일 수밖에 없는 실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상적 지향성을 드러낼 가능성을 확보⁷⁶⁾하기 위해 이태준이 이같은 사소설 형식이 필요로 했다고 본다. 『토끼이야기』는 ‘현’ 일가의 고단한 삶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어 생활 방편으로 국책에 순응하는 ‘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치며 위 지적과 같은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이후의 사소설에서도 그러한 면모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사냥』이나 『석양』은 허무주의적 양상을 보여주는데 치중하고 있고, 『해방전후』는 위에서 말한 사상적 지향을 드러내긴 하지만, 해방 이후에 발표한 까닭에 제약을 의식해 일부러 사소설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다.

IV. 결론 -이태준 후기 단편소설의 내용 변화와 관련해-

1938년에 발표한 수필 『만주기행』을 경계로 해서 이태준이 그 전후에 발표한 단편소설들은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패강냉』은 사소설 형식을 사용해 과거를 소환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를 비판했다. 이를 통해 체제 협력문제를 비껴가는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당대 문화현상을 관찰해 비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패강냉』은 민감한 정치적 내용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문화 충위를 통해 현실을 에둘러 간접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작품 내 현안이 된 사안에 대해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는 방식은 이태준이 이후에 발표한 작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76) 위의 글, p.252, 255.

이태준이 『만주기행』 이후 내놓은 『영월영감』은 1930년대에 붙었던 금광 열풍을 배경으로 한 인물의 모습을 그렸다. 그는 당대의 구체적 현실과 연결해 보면 일제가 전쟁을 수행키 위해 비밀리에 기획해 적극 독려한 산금정책과 맞닿아 있는 인물이다. 얼핏 보기에 민족주의자 같은 영월 영감의 모습은 작품 내 시간과 구체적인 정황을 흐리는 진술이 교묘하게 배합됨으로써 해석의 혼선을 빚게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책이민기 만주 이민의 생존 투쟁을 그린 『농군』은 이태준의 주된 경향과 달리 현실주의적 수법을 취한 덕분에 형상화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하지만, 작품 내·외부 시간의 상위를 이용해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 있게 했으며, 부지 중 제국주의자의 시선을 보여주는 등 균열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다른 작품에 비해 드물게 객관적 서술 형식을 취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월영감』과 마찬가지로 당국에 ‘협력’과 ‘저항’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토끼이야기』는 앞서 『패강냉』과 같은 사소설 형식을 사용해 주인공인 ‘현’ 일가의 생활고 해결이 국책과 맞물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이 『영월영감』이나 『농군』과 다른 점은 지극히 짧은 몇 마디에 불과하나 국책에 호응할 것을 명시적으로 진술한 데 있다. 『영월영감』과 『농군』이 앞서 살펴본 방식을 사용해 협력과 저항의 사이를 오갔다면, 『토끼이야기』는 사소설 형식을 통해 생활고 문제로 국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위에서 검토한 작품들은 발표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언하는 방식이나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일제 말기로 가면서 압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위에서 살펴 본 이태준의 후기 단편소설은 ‘현실참여적’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바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는 『만주기행』을 쓰기 이전에는 간접적으로나마 현실을 비판했지만, 이후에는 협력과 저항 사이를 오가는 작품을 써낸다. 그 강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세진다. 항거 불능의 현실을 고려한다 해도 그가 택한 방식은 문제가 많다. 이후에도 그는 협력과 저항 사이를 오갔으며, 해방 후에 자기 행위는 변명하는 대신 동료 문인의 그것은 비판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는 역사 의식도 자기 반성도 없는 사람이란 비판을 받게 된다⁷⁷⁾. 이런 사실은 그가 사소설을 통해 “체제협력을 보여준 장편소설과 확연히 거리를 두”⁷⁸⁾었다거나, “대일협력을 피하는 전략적인 글쓰기”⁷⁹⁾를 보여주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가 전시 사상을 내면화했거나 전시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것은 아니지만, 면죄부를 받을 만큼 아예 협조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⁸⁰⁾ 『만주기행』 이후에 이태준이 발표한 위 소설들은 모두 체제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흐름은 『사상의 월야』, 『별은 창마다』, 『왕자 호동』같은 장편소설로 이어진다. 이것은 1930년대 말 이후 이태준 소설의 장편과 단편이 각기 다른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줄기로 묶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가능성은 이 시기에 이태준이 쓴 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면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77) 최용석, 앞의 글, pp.216~217.

78) 방민호, 앞의 글, p.236.

79) 장성규, 앞의 글, p.155.

80) 배개화, 『이태준의 전시 체제 대응 방식: 천리에 방심하지 않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p.165.

【참고문헌】

1. 자료

- 우석, 『현대조선의 시대광』-민주광. 금광광. 미두광. 잡지광, 『인문평론』, 1939. 11.
- 이태준, 『농군』(『이태준문학전집』 제2권, 깊은샘, 1995)
- _____, 『영월영감』(『이태준문학전집』 제2권, 깊은샘, 1995)
- _____, 『토끼이야기』(『이태준문학전집』 제2권, 깊은샘, 1995)
- _____, 『패강냉』(『이태준문학전집』 제2권, 깊은샘, 1995)
- _____, 『민주가서 돈 벌나면』, 『삼천리』, 1936. 8.
- _____, 『민주기행』(『이태준 문학전집』 제15권, 서음출판사, 1988)
- _____, 『문장강화』(『이태준 문학전집』 제16권, 서음출판사, 1988),
- _____, 『사금.광산.곡선』(『이태준 문학전집』 제15권, 서음출판사, 1988)
- _____, 『산양선의 우울』(『이태준 문학전집』 제15권, 서음출판사, 1988년)
- _____, 『산의 추억』(『이태준 문학전집』 제15권, 서음출판사, 1988)
- 이호윤, 『신칸센 노조미, 히카리 그 이름에 숨겨진 역사』, 『국방일보』, 2013. 2. 6.
- 임화, 『농민과 문학』 『문장』, 1939. 10.
- _____, 『단편소설의 조선적 특성』, 『인문평론』, 1939. 10.
- _____, 『생산소설론』, 『인문평론』, 1940. 4.
- _____, 『일본 농민문학의 동향』, 『인문평론』, 1940. 1.
- _____, 『창작계의 일년』, 『문장』, 1939. 12.
- _____, 『현대소설의 귀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2. 단행본

- 김윤식, 『해방공간문학』,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 유종호, 『인간 사전을 보는 재미』, 『문학의 즐거움』, 민음사, 1995.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6.
-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권, 어문각, 1967.

3. 논문

- 강명수, 『체호프와 이태준의 소설세계에 나타난 미와 현실』-〈6 호실〉과 〈패강냉〉

- 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19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07.
-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이태준의 위상』, 『상허학보』 제13호, 상허학회, 2004.
- 고명철,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아의 <대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9집, 한국문학회, 2008. 8.
- 권성우, 『이태준 기행문 연구』, 『상허학보』 제14호, 상허학회, 2005.
- 김도희, 『이태준 단편 <패강령(溟江冷)>의 항일문학적 성격』, 『한국현대소설학회』 제2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_____, 『일제 말기 이태준 소설의 대일 협력적 성격』, 『문화콘텐츠연구』 제10호, 동의대학교, 2005. 4.
- 김외곤, 『식민지 문학자의 만주 체험』-이태준의 『만주 기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9.
- 김용직, 『일제말 암흑기 한국문학인들의 의식 성향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제10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 김재용,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2002년 봄, 실천문학사, 2002. 2.
- 김 철, 『몰락하는 신생(新生) :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誤讀)』, 『상허학보』 제9호, 깊은샘, 2002. 8.
- 김호웅, 『만보산 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 제5회 식민주의와 문학 학술회의 자료집, 『만주국』과 동아시아문학』, 2009. 9. 26.
- 김희숙,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식민주의』-『문장』지 소설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제45호, 문창어문학회, 2008.
- 민충환, 『상허 이태준론(2)-『농군』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7.
- 박영석, 『일제하 한국인 만주이주에 관한 연구』-일제의 한국인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10집, 1979.
- 박진숙, 『이태준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방민호, 『일제말기 이태준 단편소설의 ‘사소설’ 양상』, 상허학회 편, 『한국문학과 탈식민주의』, 2005.
- _____,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현대문학회, 2007.

- 배개화, 『이태준의 전시 체제 대응 방식』-천리에 방심하지 않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0.
-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제86집, 한국어문학회, 2004, 12.
- 신동욱, 『이태준의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동방학지』 제74집, 연세대 국학연구소, 1992.
- 안미영, 『이태준의 근대 소설에 반영된 식민지 어문정책과 민족어의 성격』, 『국어국문학』 제142호, 국어국문학회, 2006.
- 우정덕, 『이태준의 작품에 드러난 자기상과 그 결락』-수필집 『무서록』과 『심경소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1호, 국제어문학회, 2011.
- 유인혁, 『이태준의 『토끼이야기』에 나타난 자연과 근대』, 『인문연구』 제6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8.
- 유철상,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고전의 현대화와 수단으로서의 고전주의』, 『현대소설연구』 제2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6.
- 이도연, 『이태준의 전통주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5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 _____, 『이태준 단편 연구』-토끼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45호, 민족어문학회, 2002.
-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일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 양상』, 『근대문학연구』 제17호, 2008.
- _____,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만보산 사건에 대한 한중일 작가의 민족인식 연구(1), 『현대소설연구』 제4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4.
- 이익성, 『이태준 자전적 단편 소설의 구조』, 『개신어문연구』 제31호, 개신어문학회, 2010.
- 이현진, 『동경기행과 만주기행을 통한 이태준의 시선과 인식 변화 연구』-이태준의 『무서록』(1941)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오스키 사카에,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그룹,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제38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 장영우, 『농군』과 만보산 사건, 『현대소설연구』 제3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 장영우, 『해방 후 이태준의 소설연구』, 『한국문학연구』 제16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3.
- 정연희,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이태준 문학의 의미와 가치』, 『현대소설연구』 제31호, 2006. 9.
- 정종현,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1940년대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혼종성, 『상허학보』 제13호, 상허학회, 2004.
- _____,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28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6.
- 최용석,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2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하재연, 『‘신체제(新體制)’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현대문학회, 2008. 8.
- 하정일, 『한국 근대문학 연구와 탈식민』, 『민족문학사연구』 제23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 _____, 『1930년대 후반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성찰』, 『배달말』 제34호, 배달말학회, 2004.
- _____, 『일제 말기 이태준 문학의 탈식민적 가능성과 한계』, 『작가세계』 제71호, 세계사, 2006.
- 한만수, 『이태준의 『폐강냉』에 나타난 검열우회에 대하여』, 『상허학보』 제19호, 상허학회, 2007.
- 三枝壽勝, 『李泰俊作品論』-長篇小説お 中心として-, 九州大學 文學部 『史淵』 第百十七輯, 1980.

Abstract

Study on Aspects of Change in Lee Tae Jun's Later Short Stories
—Focused on the Previous and Later Works of Manchuria Travel

Lee, Jeong-eun

This study examined how short stories that Lee Tae Jun published during the new system period changed comparing to previous ones. It tried to explain this change by analyzing major works among his late short stories, focusing on the fact that typical studies had not been able to consistently determine aspects of changes of his works around the new system period. Lee Tae Jun's essay, <Manchuria Travel>, forms the boundary of this change. He shows exoticism for objects and views of imperialism simultaneously in this <Manchuria Travel>. Short stories that he wrote after <Manchuria Travel> have a common ground, system collaboration, regardless of extents or forms. This flow of his short stories matches with his walk in this period. Deeper level of review is needed in that the collaborative characteristic that Lee Tae Jun showed in this period is not one-off, as typical discussions noted, but continuous.

Key words : new system, Manchuria Travel, system collaboration, compliance

이정은

소속: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강사

주소: 대구광역시 황금2동 796-7 아이리스 303호

전화번호: 011-810-6100

전자우편: jelan@naver.com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